

#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 특별회의

“원조 증액 및 배분에 관한 DAC(개발원조위원회) 특별회의”가 Richard Carey 개발협력국장 주재하에 6.25-26간 세계은행 파리사무소 및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원조 배분 정책에 관한 2007년 DAC 서베이”의 방법론, 원조 배분(aid allocation), 원조의 예측가능성 등을 논의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 핵심요지

- 공여국들의 개별 수원국가별(at the country level) 중장기(3-5년) 원조 배분 정책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DAC 서베이를 금년 8월-9월간 DAC 회원국 대상으로 진행키로 하였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계획 가능한 원조(programmable aid)”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OECD 사무국 2006년 개발협력 통계(공여국 공약에 근거)에 따르면, 2005년 DAC 회원국들의 총 ODA 규모는 1,048억불로서 GNI 대비 ODA는 평균 0.33%이다. 2006년도는 986억불, 0.30%이고, 2010년도는 1,301억불, 0.36%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0년 DAC 회원국들의 원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총 250억불의 원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향후 2010년까지의 원조 증액(scaling up)이 절실한 점에 대해 공감하나, 일부 국가들의 실제 원조 증액(스페인, 이태리의 경우 각 40억불)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었다.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원조의 집중과 분산,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향후 원조 흐름 시나리오 분석 등을 금년 12월 DAC SLM 회의의

주요 의제로 상정기로 했다.

점을 고려한다면, 사무국이 통계 처리의 편리를 위해 북한을 미국의 우선순위 지원국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II. 관찰 및 평가

-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DAC 회원국들은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평균 3-5년 동안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원조 배분 계획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우리 나라와 국민소득이 유사한 그리스도 2007-11년간 5년간 총체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발칸,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주요 원조 대상국에 대한 3년간 국별 원조 배분 계획을 마련 중이다.

- 사무국이 “원조의 분산과 집중” 보고서 북한이 DAC 회원국 중 1개국으로부터 우선 순위 지원 국가로 지정되어 원조를 제공받는 것으로 별첨 도표에 표기했다. 동건 관련 OECD 사무국 확인 결과, DAC 회원국이 사무국에 우선순위국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이 2003-2005년간 총 3천 5백만불 이상의 지원액을 특정국가에 제공하면, 사무국이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 국가들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즉 북한을 우선 순위국가로 자체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없으나, 미국이 상기 지원액 이상(1.07억불)을 지원한

## III. 주요 결과

### 1. 원조 배분 정책에 관한 2007년 DAC 서베이 조사 방법론

- 공여국들의 개별 수원국가별(at the country level) 중장기(3-5년) 원조 배분 정책 및 향후 원조 지출 계획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DAC 서베이를 금년 8월-9월간 DAC 회원국 대상으로 진행기로 하였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계획 가능한 원조(programmable aid)”만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일본은 국내 회계 년도가 1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사무국이 요청한 평균 3-4년간 중장기적 국별 원조 및 지출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고, 수원국내 자국 원조 집행사무소의 중장기 계획 잠정치를 보고할 수 있다는 입장(서면으로 입장 제출 예정)을 표명했으며 이에 회원국들과 사무국은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DAC 가입시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일간의 원조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일본의 대응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계획가능한 원조”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총 ODA에서 예측불가능한 긴급구호 원조, 국경을 초월하지 않는 형태의 원조, 명목상 거래 (부채 탕감), 정부간 협력협정이 아닌 형태의 원조 제공 등은 제외기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하기로 했다.

- 대규모의 의료 리서치, 소규모 지식 공유(기술협력) 등은 계획가능한 원조로 포함키로 하는 등 규모가 큰 형태의 원조는 가능한 포함하기로 했으나 NGO 지원은 재 논의하기로 했다.
- 일본은 재난 방지 및 재난 대비 관련 인도적 지원은 계획가능한 원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 2. 미래 원조 흐름 시나리오(future aid flow scenario) 분석

- 가나, 탄자니아, 베트남 3개국에 대한 미래 원조 흐름 시나리오(공여국들의 scaling-up 예측액, 최근 동향을 고려한 ODA 제공액, 수원국 정부가 예측한 ODA 제공액 등 3개 예측에 기초)를 작성, 동 시나리오가 향후 원조 계획 수립시 유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 동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향후 공여국들의 중장기 원조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의 논의는 12월 DAC SLM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다.
- 수원국 정부가 예측한 ODA 제공액 시나리오

는 수원국가의 낮은 기대치로 인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들의 scaling-up 예측액 및 최근 동향을 고려한 ODA 제공액과 갭이 발생하여 동 시나리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들이 표명되었다.

## 3. 원조의 분산(fragmentation)과 집중(concentration)

- DAC 회원국들의 원조 행태를 평가해 본 결과, 원조의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 DAC 회원국들의 원조가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공여국들의 우선순위 국가들은 남미의 경우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경우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와 말리, 아시아의 경우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키니스탄으로 지정되어 원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변동성(volatility)

### 가. 개론

- 1998-2002년까지의 900건 이상의 ODA 흐름을 조사한 바, 평균적으로 수원국의 ODA가 매년 4% 실질 상승했다.
- 전체 건수중 43% 이상의 경우, 차기년도의

ODA는 전년도의 90%~120%사이에서 제공되었다.

- 원조의 변동성은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가 안정된 국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변동성이 평균 10~20%사이에서 측정되나, 분쟁 및 정쟁 등으로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는 동 변동성이 50%에 달한다.
- 공여국들이 1년 회계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수원국에 중장기적 원조 계획을 제공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같은 공여국들의 중장기적 공약의 부재는 수원국들의 중장기적 국가개발 예산 계획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 결국 빈곤감축 전략(PRS)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 나. 수원국 샘플링 조사

- 가나, 탄자니아, 베트남 등 3개 수원국을 대상

으로 한 원조 예측가능성 조사 결과, 트렌드 자체는 매우 명확했고 원조 공약과 지출계획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다. 사무국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변동은 상당하나, 트렌드 자체는 비교적 완만하여 국별 원조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

- 가나의 경우는 완만하게 공여국들의 공약액, 실제 지출액이 상승하며, 탄자니아의 경우는 상기 2개 지표가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 상기 자료는 원조 집중 대상국가들(aid darling)만이 선정되어 biased될 측면이 있는바, 원조 고아국(aid orphans), 취약국가 등 원조 성과가 부실한 국가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